

비트코인 광풍 다시부나... '가상화폐 시장' 꿈틀

정부, 내달 가상화폐 기반 해외송금서비스 여부 결정
베잔트 거래가격 20% 급등



최근 3개월간 비트코인 시세 차트. /빗썸 캡처

가상화폐 사용 논의가 확대되면서, 가상 화폐 거래 시장도 다시 꿈틀대고 있다. 거래량이 2017년 말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이며, 거래가격도 오랜만에 오르는 추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가상화폐 기반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인정하는 안건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른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논의하게 된다.

신청자는 중소기업 모인이라 회사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게 되면 빠를 뿐 아니라 수수료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해외송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 화폐 '베잔트'를 이용하게 된다.

이같은 계획이 발표된 6일, 베잔트 거래 가격은 20% 가까이 치솟았다. 가상 화폐 거래소 빗썸을 기준으로 새벽 0시에 개장 27일 수준에서 다음날인 7일 오전 7시경에는 33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후 31~32원대 가량 시세를 오르내리는 중이다.

앞서 지난 달에는 갤럭시 S10이 가상 화폐 시장을 뒤흔들기도 했다. 갤럭시S

10에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연평 행사가 열린 20일 해외에서 4000달러를 넘어섰다. 갤럭시 S10이 지원하는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0% 이상 크게 올랐다. 국내에서는 17일 계부터 선반영돼, 빗썸 기준 비트코인이 400만원에서 24일 450만원까지, 이더리움은 12만원에서 16만원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여기에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기술 검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0개 과제를 선정해 42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히면서다.

그밖에도 암호 화폐 활용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IBM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관리 시스템을 개선 중이고, 페이스북도 지난해 '체인스페이스'를 인수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자체 암호 화폐를 개발할 예정이다. 라인은 이미 지난해 암호화폐 '링크'를 발행한 상태, 텔레그램 등 메신저 서비스들도 가상화폐 활용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이 오고간 트랜잭션은 하루 평균 30만건을 넘어섰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던 2017년 말 수준이다.

그러나 트랜잭션 대부분이 여전히 거래량이라는 분석은 가상화폐 발전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다. 가상 화폐가 화폐 역할을 하려

면 교환 가치를 증명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활용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다. 지난 1월 금융위는 규제샌드박스 설명회에서 유독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올 들어 핀테크지원실 산하 '블록체인 연구관'도 없었다. 한국은행도 '가상통화·CBDC발행 관련 공동연구 TF'를 폐지했다. 발족하지 불과 1년여 만이다.

때문에 정부가 다음달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

다. /김재용 기자 juk

@metroseoul.co.kr



올해 기업 10곳 중 4곳 '연봉 동결'

기업 423곳 연봉인상여부 조사

이유, 실적(안 좋아) 재무 불안정 順

올해 기업 10곳 중 4곳 꼴로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연봉 인상 여부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기본급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사람이 기업 423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연봉인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상한다는 기업이 62.9%로 가장 많았고, 동결한다는 기업은 36.4%

였다. 삭감하는 기업은 0.7%로 극소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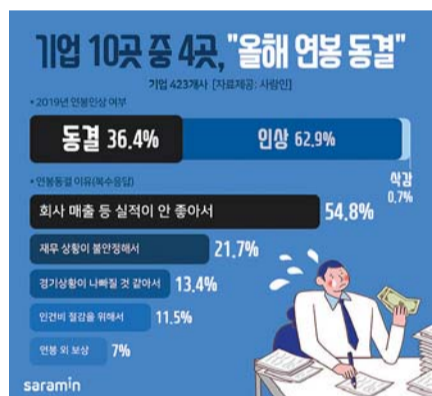
연봉 동결을 감행한 기업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회사 매출 등 실적이 안 좋아서' (5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재무 상황이 불안정해서' (21.7%), '올해 경기상황이 나빠질 것 같아서' (13.4%),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11.5%), '연봉 외 다른 보상으로 대체할 계획이라서' (7%), '위기경영의 일환으로 직원 모두 동의해서' (7%) 등의 이유가 나왔다.

연봉을 인상한다는 기업들의 평균 인

상률은 5.6%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6%)보다 0.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인상률 수준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49.6%)', '높아짐' (27.8%), '낮아짐' (15.4%)이었다.

연봉 인상률은 사원급이 평균 6%로 가장 높았고, 대리급(5.6%), 과장급(5.2%), 부장급(4.6%), 임원급(4.1%) 순으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떨어졌다.

연봉을 인상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꾸준하게 연봉 인상을 진행해와서' (4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최저임금 인상폭을 반영하기 위해' (36.1%)서가



바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24.8%), '회사 전체 실적이 좋아서' (12%), '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11.3%), '현재 연봉이 낮은 편이라서' (9.4%) 등의 이유가 있었다.

전체 기업 중 올해 연봉 인상 여부에 최

저 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기업은 절반이 넘는 53.2%였다. 이렇게 보는 기업 10곳 중 8곳(80.9%)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했다'고 답해 최저 임금 인상이 소득 상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들은 연봉 인상과 인상을 책정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기업 전체 실적과 목표달성률' (40%)을 꼽아 기업이 성장해야 성과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 '회사의 재무 상태' (16.8%), '개인 실적과 목표달성률' (11.8%), '인사고과 점수 및 업무성과' (9.2%), '물가 상승률' (5.9%), '부서 실적과 목표달성률' (4.5%) 등의 조건을 고려했다.

/한용수 기자 hys@

인사말씀

두산그룹 고(故)박용곤(엘리아) 명예회장의 상례에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와 문상과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드림이 마땅한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가족 일동 드림

미세먼지 나쁜날 실내서 카드사용 늘었다

BC카드 카드사용 분석

멀티플러스·영화관 등 매출 급상승
방독면·KF94 등 키워드 검색 증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이상 일때 실내 카드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는 겨울철(12월, 1월)에 발생한 미세먼지가 실제 소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BC카드 빅데이터센터가 지난 2년 내 겨울에 발생한 총 124일간의 카드 매출 데이터와 기상청 에어코리아의 공공데이터, 다음소프트의 소셜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했다.

◆미세먼지 '나쁨', '매우 나쁨'일 때 소비 급증
조사 기간 동안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 이상을 기록한 일수는 기간 중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일반 카드 매출 데이터 및 미세먼지 등급을 종합한 결과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과 '매우 나쁨'일 경우 '보통'일 때보다 일 평균 매출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 평균 이용 건수, 고객 및 건당 매출액 역시 증가했다.

또 성별·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과 젊은 연령대에서 미세먼지 등급이 나빠질수록 일 평균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을 기록할 경우 실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멀티플러스·영화관·복합쇼핑몰·키즈카페 업종의 매출

<미세먼지 '보통' 대비 구분별 증감률>

구분	보통(기준)	나쁨	매우 나쁨
일 평균 매출액	-	2.90%	7.80%
일 평균 매출건수	-	3.00%	1.90%
일 평균 이용고객	-	2.90%	2.00%
건당 매출액	-	-0.10%	5.80%

액이 '보통'이었을 때 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공기청정기·마스크 관심도 ↑

BC카드가 사회 이슈 및 트렌드 분석을 위해 다음소프트와 함께 진행 중인 소셜 데이터 분석 플랫폼(SMA)을 통해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등급에 따라 '공기청정기', '마스크'의 언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6년 1~3월 대비 올해 1~2월에 발생한 미세먼지 대처방안에 대해 '방독면'·'미세먼지 측정기'·'KF94' 등 보다 구체적인 키워드 검색량이 증가했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카드소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BC카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카드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영 기자 hong93@